

к с і

# 甲骨文<sup>1)</sup>을 통한 《說文解字》 2篇下의 字形 풀이 고찰(Ⅲ)<sup>1)</sup>

장혜영\*

## <목 차>

1. 序 論
2. 《說文解字》 자형 풀이의 오류
  - 1) 字形 演變으로 인한 오류
  - 2) 後起字를 本字로 삼은 오류
  - 3) 聲訓法에 의한 오류
  - 4) 互訓法에 의한 오류
3. 結 論

## 1. 序 論

언어의 표기 기호인 문자는 시대의 변천과 함께 변화되어 왔다. 중국어문학의 연구 주요 대상인 한자 역시 공식적으로 3,500여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였다. 더욱이 오늘 날은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모든 문화의 파생과 전파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상 전통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교류를 맺어왔던 관계

\* 대전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강의전담 교수

1) 본 논문은 갑골문을 통하여 《설문해자》 14편의 자형 풀이를 고찰하는 연구의 일부분입니다. 선행 논문으로 〈甲骨文을 통한 《說文解字》 1篇의 오류 수정〉(《中國言語研究》 제17집, 한국중국어학회, 2003.12.), 〈甲骨文을 통한 《說文解字》 2篇·上의 오류 수정〉(《中國研究》 제32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 2003.12.) 등이 있습니다. 본 논문의 제목이 위 두 편에서 수정되어 《자형 풀이 고찰》로 바뀌었으나,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 위 두 논문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세번 째(Ⅲ)'라고 표기하였습니다.

로, 한자문화권이라고 하는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재, 사회적으로 중국어와 그 기록매체인 한자에 대한 교육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리라 전망된다. 한자 교육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문자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라고 생각하며, 그 기초가 되어준 저서가 《설문해자》이다.

《설문해자》는 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자전으로, 東漢의 許慎이 和帝 永元 12년(100년)에 착수하여 安帝 建光 元年(121년)에 완성하였으며, 중국 문자학 방면에서 경전으로까지 추앙된다. 漢代는 秦의 분서갱유를 겪고나서 중원을 통일한 정권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혼란과 단절이 있었을뿐만 아니라, 문자학 측면에서도 古文과 今文이 교체되는 시기였다. 허신은 《설문》이 제작될 당시, 이미 금문인 隸書가 보편적으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字形의 원리를 밝히고자 篆文(小篆)을 표제자로 하여 古文(壁中書), 籀文(大篆), 或體, 俗體 등을 수집하고, 이에 근거하여 본의 해설을 시도하였다.<sup>2)</sup> 이후, 이러한 자형에 근거한 字義 연구 방법은 청대의 소위 '因聲求義'에 의한 고증학 연구가 활발해지기 전까지, 1,700여년 간 부동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저서인 《설문해자》의 권위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1899년 발견된 갑골문이었다. 대부분 殷 왕실의 占卜記錄인 갑골문은 현재까지 중국 最古의 漢字로 인정받고 있는 문자로, 商 盤庚이 殷墟로 遷都한 후, 周 武王에게 紂가 멸망당하기 까지 254년간(B.C.1,300~B.C.1,046)<sup>3)</sup>의 기록이다. 갑골문

2) (漢)許慎撰, 《說文解字·敘》(北京:中華書局, 1996), 320쪽. : 성인은 함부로 창작을 하지 않았으니, 모두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제 오경의 도리가 밝게 빛나고 있지만, 그 근본은 문자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주나라의 예법에서부터 한의 법률에 이르기까지 모두 육서를 배워야만 그 뜻을 통달할 수 있는데, 교묘한 말들이 학자들을 의혹시키고 있는 듯 하다. 나는 널리 묻고 스승 賈逵(古學의 大家)의 학설로 고찰을 하여 《설문해자》를 지었다. (蓋聖人不空作, 皆有依據。今五經之道, 昭炳光明, 而文字者其本所由生。自周禮漢律, 皆當學六書, 貫通其意。恐巧說衰辭使學者疑。慎博問通人考之於逵, 作說文解字。)

3) 夏商周斷代工程專家組 主編, 《中國五千年長曆》(氣象出版社, 2002.) : 기존의 학설에서는 273년간(B.C.1384~B.C.1111)으로 여겼으나, 중국 정부에서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 각 대학 역사학·문자학·기상학 등 학과의 200여 명 학자들로 하여금 중국 연대를 연구 산출하도록 하는 이른바 '夏商周斷代工程'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商 건국은 B.C.1600년, 盤庚의 遷都는 B.C.1300년, 상의 멸망은 B.C.1046년으로 확정하였다.

甲骨文을 통한 《說文解字》 2篇下의 字形 풀이 고찰(Ⅲ) 77  
 은 《설문》보다 1,500여년 이전의 문자이면서도, 문자학적으로 六書의 기능이 거의  
 완비된 문자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갑골문은 《설문》이라는 교량을 통하여 그  
 연구가 탄탄하게 진행되었고, 《설문》 역시, 갑골문을 통하여 시대적 한계에 의한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字書로써 거듭 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고에서는 우선, 《설문》 14편중 2편·하의 323개 小篆(重文 49개)<sup>4)</sup>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 2. 《說文解字》 자형 풀이의 오류

《설문해자》 2편·하에는 14개의 부수 아래 323개의 小篆과 重文 49개가 수  
 록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323개의 문자중에서 《갑골문자고림》에 수록된 문자를  
 선별한 후, 두 자전의 본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14개 字 대하여 고찰을 시도하여,  
 《설문해자》에서 잘못 해석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갑골문자고림》에 수록된 字와 대조를 거쳐 本義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14  
 개의 字를 字形 演變으로 인한 오류, 後起字를 本字로 삼은 오류, 聲訓法에 의한  
 오류, 互訓法에 의한 오류 등으로 분류<sup>5)</sup>하여 고찰을 시도하였다.

4) (漢許慎撰, 《說文解字》(北京:中華書局, 1996.): 正(소전 2, 중문 2)·是(2, 2)·兪(118, 30)·彳  
 (37, 7)·廴(4)·辵(2)·行(12, 1)·齒(44, 2)·牙(3, 2)·足(85, 4)·疋(3)·品(3)·龠(5,  
 1)·冊(3, 2).

5) 다음의 문자학 저서에 보이는 《설문해자》의 한계에 근거하여 분류하였음을 밝힙니다.  
 《설문해자》의 한계는 시대적 한계에 따라 크게 다음의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문  
 자 자료 분석과 해석에 있어서의 착오이다. 둘째는 봉건적 유교사상과 한대 성행한 음양오행  
 설에 의한 문자 해석이다. 본인은 문자의 내재적 변화 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첫 번째 한계를  
 字形 演變, 의미의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本字와 後起字와 관계, 聲訓法, 互訓法의 각도로 세분  
 화 시켰다.

姚孝遂 主編, 《中國文字學史》(吉林教育出版社, 1995), 124-125쪽.  
 黃德寬·陳秉新 著, 《漢語文字學史》(安徽教育出版社, 1994), 44-45쪽.  
 孫鈞錫 著, 《中國漢字學史》(北京:學苑出版社, 1991), 76-82쪽.  
 劉葉秋 著, 《中國字典史略》(中華書局, 1992), 24-26쪽.

## 1) 字形 演變으로 인한 오류

## (1) 走

해 서	소 전	갑 골 문
走		

《설문》 2편하 走부 : 잠깐 가다가 잠깐 멈추는 것이다. 彳과 止로 이루어진 회의문자이다. 走이 들어간 글자들은 모두 走을 부수로 한다. 《춘추전》에 이르길, “계단을 쉬엄쉬엄 가다가 빨리 간다”라고 하였다. (乍行乍止也。從彳止。凡走之屬皆從走。讀若春秋傳曰走階而走。)

【고찰】 부수 ‘走’은 허신의 540부수에 속한 이래로, 오늘 날과 같은 형태의 부수로 정리된 《강희자전》에 이르기까지 많은 글자를 거느린 부수로써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본자이다. 《漢韓大字典》에 따르면, ‘쉬엄쉬엄 갈 (착)’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부수 변형자로서 ‘止(책받침부)’를 가지고 있다.<sup>6)</sup> 갑골문에서는 ‘길(行)’을 걸어가는 ‘발(止)’의 모습으로써 ‘걸어가다’의 의미에서 인신되어 ‘彳·延’와 같이 쓰여 ‘이어지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며, 또한 가차되어 인명으로 쓰였다.<sup>7)</sup> 《설문》에서도 ‘彳’과 ‘止’의 회의자로 보았으나, 두 글자 모두 변화된 자형과 분화된 의미에 근거하여 본의 해석을 틀리게 하고 있다. 즉, ‘彳’은 ‘길’을 나타내는 ‘行’으로 보아야 할 것을 ‘사람의 다리 모양을 본 뜬 상형문자’로써, ‘조금 걷다’의 의미로 보았고<sup>8)</sup>, ‘止’는 인신한 ‘발(趾)’의<sup>9)</sup> 의미에서 분화된 ‘멈추다’라는 의미로

余國慶 著, 《說文學導論》(安徽教育出版社, 1995), 194-209쪽.

6) 民衆書林 編輯局 編, 《漢韓大字典》(서울 : 民衆書林, 2002), 2041쪽.

7) 徐中舒 主編, 《甲骨文字典》(成都 : 四川辭書出版社, 1995), 149-150쪽. 이하 《자전》으로 약칭함.

8) (漢)許 慎 撰, (清)段玉裁 注, 《說文解字注》(臺北 : 天工書局, 1992), 76쪽. : 小步也。象人脛三屬相連也。이하 《설문》이라 함.

9) 《설문》, 앞의 책, 67쪽. : 지는 아래 기초이다. 초목이 터에서 나오는 것을 본뜬 것이다. 그리

甲骨文을 통한 《說文解字》2篇下の字形 풀이 고찰(Ⅲ) 79

보았다. 두 의미를 결합한 결과, 가다가 멈추다하는 의미의 '쉬엄쉬엄 가다'라는 뜻이 오늘 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본의 해석의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辵'을 부수로 하는 글자들은 대체로 '가다'라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2) 彳

해 서	소 전	갑 골 문
彳		


《설문》 2편하 彳부 : 조금 걸여가는 것이다. 사람의 정강이가 위로 넓적 다리, 가운데 정강이, 아래 발등과 셋으로 이어서 서로 연결된 것을 본 뜬 것이다. 彳을 가지고 있는 글자들은 모두 彳을 부수로 한다.(小步也。象人脛三屬相連也。凡彳之屬皆從彳。)

【고찰】 '彳'은 '조금 걸을 (척)'으로 흔히 부수자로써 '두인변'이라고 부른다.<sup>10)</sup> '조금 걷는다'는 뜻은 위에서 보듯이 《설문》에 근거한 설명으로, 본의와는 어긋난다. 갑골문 자형은 분명하게 '彳'이 인체와 관련된 글자가 아니라, '네 거리(行 𠂔)'의 한 쪽 부분임을 알려준다. 따라서 '彳'을 부수로 하고 있는 글자들은 대부분 '걸는 것'이나, 혹은 '길'과 관련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갑골문에서 소전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형태로 변형되면서 오류를 범하였다.

므로 '止'를 '발'로 삼는다. (止, 下基也。象艸木出有趾, 故以止爲足。)

10) 《한한대자전》, 위의 책, 717쪽.

(3) 德

해 서	소 전	갑 골 문
德		

《설문》 2편하 彳부 : 오르는 것이다. 걷는다는 의미(《설문》)의 彳은 의미를 나타내고, 惠는 성부를 나타내는 형성문자이다. (升也。從彳惠聲。)

【고찰】 갑골문에서는 길(彳)과 눈(目)과 추상적 의미의 직선(丨)으로 이루어진 회의 문자로서, 걸어갈 때 눈이 앞쪽을 직시하여 마음이 들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단정함을 나타낸다.<sup>11)</sup> 《설문》에서는 본의 설명을 오직 의부인 彳(허신의 잘못된 해석으로 '조금 걷다')에 근거하여 '오르다'로 해석을 했을 뿐 아니라, '惠(德)'을 성부로만 취급하여 의미를 두지 않았다. 《설문》 10편하 심부의 惠<sup>12)</sup>에 대한 해석은 갑골문의 의미뿐 아니라, 오늘 날의 의미인 '덕·바름'의 의미와도 가깝다. '길을 갈 때 바르게 본다'는 의미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글자

11) 馬如森 著, 《殷墟甲骨文引論》, 0124 (吉林: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3). 이하 《인론》이라 약칭함.

12) 《설문》, 위의 책, 502쪽. : 《설문》 10편하 심부 : 덕은 밖으로는 은택을 베풀어 남이 얻도록 하고, 안으로는 심신에 자득한 점이 있는 것이다. 直과 心으로 이루어진 회의문자이다. (惠, 外得於人, 內得於己也。從直心。)





《설문》, 앞의 책, 634쪽. : 《설문》 12편하 丨부 : 직은 바르게 보는 것이다. 十과 目과 丨으로 이루어진 회의문자이다. (直, 正見也。從十目丨。 ) 從十目丨의 단주 -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둘러보아 숨겨진 것을 본다는 것이다.

《설문》, 앞의 책, 88쪽. : 《설문》 3편상 十부 : 十은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一은 동서를, 丨은 남북을 나타낸다. 즉, 사방 중앙이 완비된 것이다. (十, 數之具也。 一爲東西, 丨爲南北, 則四方中央備矣。)

《설문》, 앞의 책, 634쪽. : 《설문》 12편하 丨부 : 은은 숨기는 것이다. 굽고 은폐된 모양을 나타낸다. 丨을 가진 글자들은 모두 丨을 부수로 한다. 隱처럼 읽는다. (丨, 匿也。象退曲隱蔽形。凡丨之屬皆從丨, 讀若隱。), 《설문》, 앞의 책, 72쪽. : 《설문》 2편하 辵부 : 退는 돌아서 가는 것이다. (退, 曲行也。)

甲骨文을 통한 《說文解字》2篇下의 字形 풀이 고찰(Ⅲ) 81  
 가 추상적인 사상과 윤리를 나타내는 의미로 변화해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단  
 어이다. 즉, 모든 바른 정신 활동이 바른 행동과 표리 관계에 있음을 造字와 그 활  
 용을 통해서 중국인의 사고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4) 往

해 서	소 전 고 문	갑 골 문
往	 	 

《설문》 2편하 彳부 : 가다. 외부 彳과 성부 辵로 이루어진 형성문자이다.  
 往는 고문으로 천천히 걷는다(辵)는 의미를 가진다. (之也。從彳辵聲<sup>3)</sup>。往,  
 古文, 從辵。)

【고찰】 갑골문에서는 ‘彳(彳)·止(止)·辵(辵)’이 일상적으로 통용되었으므  
 로, 위 갑골문 자형의 ‘止’가 ‘彳(彳)’으로 변형되었고, 고문에서는 ‘辵(辵)’으로  
 보존되었고, ‘王(王)’자가 ‘𠤎’로, 혹은 ‘𠤎’자 자체가 ‘𠤎’로 변형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갑골문 ‘𠤎’은 ‘왕래하다’는 ‘往’의 본자로서, ‘가다’를 나타내는 의  
 부 ‘止(止)’와 성부 ‘王’으로 이루어진 형성문자이다. 북사에서는 본의로 동사 ‘가다’  
 의 의미외에 가차되어 제명으로 쓰였다.<sup>14)</sup> 허신은 자형이 현격하게 변한 자료를  
 근거함으로 인하여 ‘王’자와 그 위에 있는 ‘발’의 모양을 성부 ‘辵(辵)’으로 보았고,  
 해서에 이르러서는 더욱 간화하여 ‘主(주인 주)’가 됨으로써 오늘 날 형성 문자의  
 성부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13) 《설문》, 앞의 책, 272쪽 : 6편하 之(之)부 : 辵는 초목이 합부로 자라나는 것이다. 초목이  
 흙 위에 나와 있는 것을 본 뜬 글자로, ‘황’처럼 읽는다. (辵, 艸木妄生也。從出在土土。讀若皇。)  
 14) 趙誠 編著. 《甲骨文簡明詞典》(北京: 中華書局, 1996), 245쪽·34쪽, 《인론》, 위의 책,  
 0126. 《甲骨文簡明詞典》은 이하 《간명》으로 약칭함.

## (5) 得

해 서	소 전 고 문	갑 골 문
得		


《설문》 2편하 彳부 : 길을 가다 얻은 것이 있는 것이다. 彳와 犮<sup>15)</sup>으로 이루어진 형성문자이다. 犮은 고문으로 彳자가 생략되어 있다. (行有所也。從彳 犮聲。犮, 古文, 省彳。)

【고찰】 갑골문에서는 손으로 조개를 들고 있는 모양으로, '얻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본의로 쓰였고, 가차되어 인명으로도 쓰였다. 오늘 날의 '得'은 갑골문 후기에 길을 나타내는 '彳'자가 부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설문》에 수록된 소전과 고문에는 '조개'의 모양이 '見'자로 변형되어 추상적인 의미로서 '얻다'라는 본의를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형성문자로 분석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본자와 후지자와의 관계인 '犮(犮)'과 '得'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설문》 8편하 見부에 '得'의 고문 자형을 또 수록하고서, '보다'라는 의미를 넣어 해석하는<sup>16)</sup> 오류를 범하였다.

15)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全四冊(北京: 中華書局, 1996), 1918, 《간명》, 앞의 책, 333쪽, 《자전》, 위의 책, 165쪽. 이하 《고림》으로 약칭함.

16) 《설문》, 위의 책, 408쪽. : 犮은 취하는 것이다. 보고서 손으로 취한다는 의미로써, 見과 寸으로 이루어진 犮의 문자이다. 寸은 헤아린다는 뜻이고, 또한 손을 나타낸다. (犮, 取也。從見寸。寸, 度之, 亦手也。)

(6) 行

해 서	소 전	갑 골 문
行		




《설문》 2편하 行부 :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다. 彳과 亍 으로 이루어진 회의문자이다. 行이 들어간 글자들은 모두 行을 부수자로 한다. (人之步趨也<sup>17)</sup>。從彳亍。凡行之屬皆從行。)





【고찰】 갑골문의 자형은 四通八達의 대로를 본 뜬 글자로, 본의는 명사로써 ‘길’을 가리킨다. 인신되어 동사로써 ‘걷다’, 가차되어 卜官의 이름, 인명으로 쓰였다.<sup>18)</sup> 소전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변화되어 본의인 ‘길’의 의미는 없어지고, ‘조금 걸어간다’는 의미에서 ‘彳’과 그 반대 모양인 ‘亍’<sup>19)</sup>가 결합한 회의 문자로 분석함으로써 ‘걷다·다니다’의 의미만 남아 전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行’을 부수로 하는 자들은 ‘길 거리·다니다’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갑골문에서 소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람의 형태가 부가됨으로써 허신은 본의 해석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17) 《설문》, 앞의 책, 78쪽. : 行의 주석 : 보는 가는 것이고, 추는 손을 저으며 가는 것이다. 보는 천천히 가는 것이고, 추는 빨리 가는 것이다. (步, 行也。趨, 走也。二者, 一徐一疾。) 즉, 步·行·趨·走는 유의어 관계이다.  
 18) 《고림》, 위의 책, 2289, 《간명》, 위의 책, 73쪽·173쪽·344쪽, 《자전》, 위의 책, 182쪽.  
 19) 《설문》, 위의 책, 77쪽. : 亍, 걷다가 멈추는 것이다. 彳을 반대로 한 모양으로, 축처럼 읽는다. (亍, 步止也。從反彳, 讀若畜。)

2) 後起字를 本字로 삼은 오류

(1) 正

해 서	소 전	고 문	갑 골 문
正			

《설문》 2편하 正부 : 옳은 것이다. 一이 의미를 나타낸다. 一으로써 멈추는 것이다. 正을 가진 글자들은 모두 正을 부수로 한다. , 고문의 正자이다. 二를 사용하였는데, 二는 고문의 上자이다. , 고문의 正자이다. 一과 足으로 이루어졌는데, 足, 역시 멈추는 것이다. (是也。從一。一以止。凡正之屬皆從正。  
, 古文正。從二。二古文上字。, 古文正。從一足。足亦止也。)

【고찰】 갑골문의 '正'은 '口'와 '止'로 이루어진 회의문자로서, '口'는 城邑을 나타내고, '止'는 '발(趾)'을 나타낸다. 즉, 적의 성읍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으로써, 갑골문에서는 인신되어 '정벌하다'는 '征'자<sup>20)</sup>로 사용되었다. 이 인신의에서 의미가 더 분화되어 '바르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에따라 후에 '바르다'는 의미의 '正'과 파생자인 '征'이 만들어지면서, 후기자인 '征'의 의미가 '正'의 본의를 대신하게 되었다. 갑골문에서는 이러한 용법 외에 가치되어 제사명과 오늘 날에도 쓰이는 '1월'의 의미인 '정월'로 쓰였다.<sup>21)</sup> 《설문》에서는 성읍을 나타내는 '口'가 직선화 하여 '一', 혹은 고문의 '二(의미는 '위'를 나타냄)'로 변하였는데, 허신은 이를 '그 어떤 선·지점'으로써 지사적 성격으로 추상화하였다. 즉, 의미의 중점을써 그 부분에 도달하여 '멈춘다·넘어서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20) 오늘 날 상용어로 사용되는 '征'자는 갑골문 시대부터 있어왔다. 《설문해자》에는 '바르게 나아가다(正行也)'는 의미로 '征'이 표제자로 수록되어 있고, 重文으로써 '征·征'의 자형을 보존하고 있다. (《설문》, 앞의 책, 70쪽, 2편하 走부)

21) 《고림》, 위의 책, 0821, 《간명》, 위의 책, 245쪽·265쪽·3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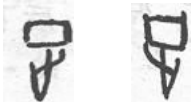
(2) 延

해 서	소 전	갑 골 문
延		

《설문》 2편하 延부 : 길게 가는 것이다. 의부인 延와 성부인 廌로 이루어진 형성문자이다. (長行也。從延廌聲。)

【고찰】 갑골문의 ‘延’는 ‘길(彳·辵)’과 ‘발(止(趾)·尸)’로 이루어진 회의자이다. 도로를 걸어가는 모양을 본 뜬 글자로, ‘계속 걸어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추상적 의미로 인신되어 부사로써 ‘연속·계속’의 뜻을 지니게 된다.<sup>22)</sup> 갑골문의 ‘辵’은 《설문》에서 오늘 날 흔히 ‘민채만침’이라 불리는 부수 ‘길게 걸을 인(辵)’으로 변화되었다. 《설문》의 ‘延’은 고금자 관계의 ‘延<sup>23)</sup>’를 대신하여 사용되어 오늘 날에까지 이르고 있다.

(3) 足

해 서	소 전	갑 골 문
足		

22) 《고림》, 위의 책, 2290, 《간명》, 위의 책, 66쪽·243쪽·289쪽·362쪽.



23) 《설문》, 위의 책, 77쪽. : (延, 《설문》 2편하 延부 : 延는 편안하게 천천히 걷는 것이다. 길게 간다는 辵과 발을 나타내는 止로 이루어진 회의 문자이다. 모든 延를 갖고 있는 글자들은 延를 부수로 한다. (延, 安步延延也。從辵止。凡延之屬皆從延。)

《설문》, 앞의 책, 77쪽. : 延, 《설문》 2편하 延부: 인은 길게 가는 것이다. 천천히 걸어가는 것을 길게 늘이게 한다는 의미이다. (延, 長行也。從彳引之。)

《설문》 2편하 足부 : 사람의 발이다. 몸 아래에 있다. 몸과 발로 이루어진 회의 문자이다. 足이 들어간 자는 모두 足을 부수로 한다. (人之足也。在體下。從口止。凡足之屬皆從足。)

【고찰】 갑골문에서 아랫부분은 발과 발가락(脚趾)의 모양을 나타내고, 윗부분은 다리 전체를 나타낸다. 즉, 본의의 ‘足’은 발가락까지의 다리 전체를 나타낸다. 후에 의미가 점점 축소되어 ‘발’을 나타내는 것만으로 쓰이고, ‘다리’라는 의미로 ‘腿’자가 생겼다. 또한, 복사에서 이미 ‘正(𠄎)’의 의미로 ‘만족하다·충족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sup>24)</sup> 허신은 위의 ‘口’를 사람의 몸으로 추상화시켰으며, 후기자의 의미를 본의로 해석한 오류를 범하였다. 따라서 회의자로 자형을 분석한 것, 역시 상형자로 보아야 한다.

(4) 品

해 서	소 전	갑 골 문
品		

《설문》 2편하 品부 : 무리라는 뜻이다. 세 사람의 입으로 이루어진 회의문자이다. 品자가 들어간 글자들은 모두 品을 부수로 한다. (衆庶也。從三口。凡品之屬皆從品。)

【고찰】 갑골문과 소전의 자형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그 모양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본의 해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갑골문 학자들은 기물의 모양을 본 뜬 글자로 추정하며, 《설문》에서는 ‘口’를 추상화한 ‘사람의 입’으로 보아 중국인들의 사교에 있어 ‘三’은 많은 것을 나타내므로, 인신하여 ‘많다’라는 의미로 풀이하였다. 허신은 그 ‘많음’을 설명함에 있어, 사람이 많음을 나타내는

24) 方述鑫 等 編, 《甲骨金文字典》(成都: 巴蜀書社, 1993), 160쪽.

‘衆’<sup>25)</sup>으로 풀이함으로써 ‘口’를 ‘사람의 입’으로 보았음을 시사한다. 유사한 설명으로 《설문》 3편상 𠂔부의 𠂔자를 “여러 사람의 입이다.”<sup>26)</sup>라고 풀이하고 있다. 《설문》에서 ‘品’과 ‘𠂔’을 부수로 하고 있는 글자들은 ‘입·소리’와 관련된 글자들인데, 유일하게 ‘器’<sup>27)</sup>는 그릇의 입 모양을 본 뜬 것으로, ‘그릇’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口’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갑골문에서는 본의로 사용된 용례는 보이지 않고, 주로 복관의 이름이나 제명으로 사용되었다.<sup>28)</sup> 구형에 대하여 불분명하다고 신중한 의견 보이기도 하나, 주로 제명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제기가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品祭는 神明에 교합하는 것으로써 商承祚는 “品은 周公彝와 같다”<sup>29)</sup>고 하였다. 또, 朱芳圃는 “口는 사물의 모양은 본뜬 것이다. 그 근거로 𠂔자가 부수를 品으로 하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즉, 𠂔는 甌의 초문으로, 甌는 작은 쟁반을 나타낸다. 옛 사람들은 드으로 많은 것을 나타내었으므로, 허신의 ‘ 많다’라는 뜻은 인신된 것이다.”라고 하였다.<sup>30)</sup> 즉, 갑골문의 ‘口’는 ‘제기’의 모양을 그대로 나타낸 상형자라면, 《설문》에서는 인신의라고 할 수 있는 ‘많다’라는 의미에 초점을 두어 ‘口’를 사람의 입으로 추상화시켜 본의를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

25) 《설문》, 위의 책, 387쪽. : 衆, 8편상 亼부 : 중은 많은 것이다. 세 사람과 눈으로 이루어진 회의 문자로, 무리의 뜻이다. (衆, 多也。從亼目, 衆意。)

《설문》, 앞의 책, 387쪽. : 亼, 8편상 亼부 : 亼은 무리가 서 있는 것이다. 세 사람으로 이루어졌다. (亼, 衆立也。從三人。)

26) 《설문》, 앞의 책, 86쪽. : 𠂔, 衆口也。從四口。

27) 《설문》, 앞의 책, 86쪽. : 器 (3편상, 𠂔부) : 器, 皿也。象器之口。犬所以守之。

28) 《간명》, 위의 책, 63쪽·246쪽.

29) 《고림》, 앞의 책, 0758, 745쪽. : 商承祚 : 作品與周公彝同。(《類編》2卷, 19쪽.)

‘彝(이)’는 술을 담는 그릇으로 長方形 혹은 正方形으로 뚜껑이 있고 귀가 있는 酒器이다. 方彝는 대부분 商과 西周 시기의 것이다.(김선희, 《甲骨文에 나타난 商代 食文化 研究》(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3.02), 135-137쪽.) 갑골문의 자형은 일반적으로 ‘두 손으로 끓에 묶인 닭이나 새를 받들고 있는 모양’(《간명》, 245쪽), 혹은 ‘머리없는 포로를 희생으로 삼아 바치는 모습’(《고림》, 1044. 詹鄞鑫의 의견 인용) 등으로, 가차되어 제명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희생에 쓰인 모습에서 인신되어 《설문》에서는 “이는 종교 제례에 늘 쓰이는 그릇이다.(彝, 宗廟常器也.)”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갑골문의 자형과 그 용례나 금석 문물을 볼 때, ‘이’는 제사에 사용된 그릇임을 알 수 있다.

30) 《고림》, 앞의 책, 0758, 746쪽. : 朱芳圃, 《殷周文字釋叢》卷中 99쪽.

였다. 오늘 날, ‘品’자는 인신의인 ‘나열하여 비교하다’라는 뜻으로써 ‘品評하다·商  
品·品質’등의 단어를 구성하고 있다.

자형의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인신의에 의하여 본의에 대한 해석에 오류  
가 생긴점에 유의하여 후기자를 본자로 삼은 오류로 귀납하였다.

### 3) 聲訓法에 의한 오류

#### (1) 逆

해 서	소 전	갑 골 문
逆		

《설문》 2편하 𠄎부 : 맞이하는 것이다. 𠄎와 𠄎으로 이루어진 형성문자이  
다. 관동 지방에서는 逆이라하고, 관서 지방에서는 迎이라고 한다. (迎也. 從𠄎  
𠄎聲. 關東曰逆, 關西曰迎.)

**【고찰】** 거꾸로 된 모양의 사람(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밖으로부터 들어가는  
것)과 걸어가서 맞이하는 글자가 결합된 회의자로서 ‘맞이하다’가 그 본의이다. 갑  
골문에서는 가차되어 卜官의 이름으로 쓰였다.<sup>31)</sup> 갑골문에서는 ‘從行(𠄎)·從止  
(𠄎)·從𠄎(𠄎)’이 일상적으로 통용되었다. 《설문》에서는 쌍성으로 ‘맞이하다  
(迎)’로 본의를 설명한 것은 옳으나, 자형 분석에 있어 ‘𠄎’와 ‘𠄎’의 형성 문자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설문》의 ‘𠄎’자 해석에서, “침범해 들어가는 아래에 함  
정이 있어 순하지 않다.<sup>32)</sup>”고 한 것을 보면, 자형 변화로 인하여 본의 해석을 ‘거

31) 《고림》, 앞의 책, 0270·2328. 《간명》, 위의 책, 66쪽·77쪽·173쪽·290쪽·350쪽,  
《인론》, 위의 책, 311쪽, 《자전》, 위의 책, 153쪽·210쪽.

32) 《설문》, 위의 책, 87쪽. : 𠄎, 不順也. 從干下L, 逆之也. 段玉裁注: 後人多用逆, 逆行而𠄎廢矣.

甲骨文을 통한 《說文解字》2篇下の字形 풀이 고찰(Ⅲ) 89  
 스투다'는 의미로써 풀이하고 있다. 허신의 분석과 달리 '逆'지는 성부의 기능외에  
 의부 기능까지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늘 날, '逆'은 '맞이하다'라는 의미에서  
 함의하고 있는 그 반의어 '거스르다'라는 의미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허신 당시  
 에도 '逆'자 하나에 두 의미가 공존하였을 것이며, 방언으로서 '迓'과 '逆'이 통용되  
 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역시, 자형 분석에 있어 오류를 범하였다.

(2) 律

해 서	소 전	갑 골 문
律		

《설문》 2편하 彳부 : 고르게 펴는 것이다. 의미를 나타내는 彳과 성부인  
 聿로 이루어진 형성문자이다. (均布也。從彳聿聲。)

【고찰】 갑골문과 소전의 자형 변화는 다른 글자들에 비하여 오히려 그다지  
 크지 않다. 갑골문에 근거해 보자면, '길'인 '彳'과 '손으로 펼기구를 들고 있는 모습'  
 인 '聿'로 이루어진 회의 문자이며, 복사에서는 가차되어 지명으로 사용되었다.<sup>33)</sup>  
 진시황이 전국시대를 통일한 후, 통일 문자인 소전으로 법률을 비석에 새겨 전국  
 에 새겨놓은 것처럼, 당시 이 '律'자는 '지켜야 할 약속을 거리에 써 놓은 것·법률'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허신은 쌍성 관계인 '均'자<sup>34)</sup>를 써서 '고르게 펴다'라고 본의  
 를 설명하였고, 자형을 '다니다(《설문》 해석 근거)'는 의미의 '彳'과 성부 '聿'로 이  
 루어진 형성 문자로 보았다. 《설문》 3편하 聿부의 '聿'을 보면, "서사 도구이다.(聿,  
 所以書也。)"라고 하였다. 즉, 회의문자로 분석하지 못하고, 성훈법에 의하여 '均'  
 으로 본 점이 아쉽다. 《爾雅·釋言》에서, "율은 헤아리는 것이다.(律, 銓也。)"<sup>35)</sup>이

33) 《고림》, 위의 책, 2353, 《인론》, 위의 책, 0131.

34) 《설문》, 위의 책, 77쪽. : 律의 단주 : 균과 율은 쌍성 관계이다. (均律, 雙聲。)

라고 한 것으로 보아, ‘律’이 이미 ‘법률’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4) 互訓法에 의한 오류

##### (1) 追

해 서	소 전	갑 골 문
追		

《설문》 2편하 追부 : 쫓아가는 것이다. 追이 의미를 나타내고 追이 소리를 나타내는 형성문자이다. (追, 逐也。從追自聲。)

【고찰】 《설문》에서 ‘追’와 ‘逐’은 ‘쫓아가다’라는 의미로 호환하고 있다. 갑골문의 ‘追’자 윗부분인 ‘自’의 형체에 대하여, 갑골 학자들은 구형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러나 사용에 있어서는 구별을 두었다. ‘追’는 사람, 즉 노예나 죄인을 쫓을 때 사용하였고, ‘逐’은 사냥에서 노루나 돼지 등 짐승을 쫓을 때 사용하였다. 복사에서는 가차되어 복관의 이름과 ‘군사의 무리’를 나타내는 ‘師’의 의미로 사용되었다.<sup>35)</sup> ‘征(征)’자 갑골문 자형의 변체자 征을 보면, ‘自’이 부가되어 있는데, 발의 주인공들이 ‘군사 무리’임을 알 수 있다. 허신은 의부 ‘追’과 성부 ‘自’로 이루어진 형성문자로 잘못 분석하였다. 소전에서는 자형이 ‘追<sup>37)</sup>로 바뀌어 허

35) 《爾雅注疏》, ((清)阮元 校刻, 《十三經注疏》全二冊, 北京: 中華書局, 1996), 2582쪽. : 감괘와 을은 헤아리는 것이다. (坎·律, 銓也.) 주석 : 《주역》의 감괘는 법을 위주로 한다. 법률은 경중을 헤아리는 것이다. (易坎卦主法, 法律皆所以銓量輕重。)

36) 《간명》, 위의 책, 69쪽·80쪽·82쪽.

37) 《설문》, 위의 책, 730쪽. : 《설문》 14편상 追부 : 追는 작은 언덕이다. (追, 小阜也。), 731쪽

신은 의부의 기능을 보지 못하고, 성부로만 분석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2) 逐

해 서	소 전	갑 골 문
逐		

《설문》 2편하 逐부 : 쫓아가는 것이다. 辵이 의미를 나타내고, 豕는 성부를 생략한 것이다. (追也。從辵。豕省聲。)

【고찰】 《설문》의 자형은 갑골문의 자형에 비하여 도형성이 사라진 것 외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갑골문의 자형에 근거해보면, 돼지, 혹은 사슴 등을 쫓고 있는 발의 모습으로써 '쫓아가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회의문자이다. 자형에 따라 '길'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갑골문에서는 '止(止) · 辵(辵)'은 통용에 구별이 없었다.<sup>38)</sup> 《설문》에서는 互訓法에 의하여 서로 '쫓아가다'라는 의미로 본의를 해석하고, 의부 '辵'과 생략된 성부 '豕'<sup>39)</sup>로 구성된 형성 문자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豕'는 의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허신은 자형 분석에서 오류를 범하였다.

: 《설문》 14편하 阜部 : 阜(언덕 부)은 큰 물으로 산에 돌이 없는 것이다. 상형문자이다. (阜, 大陸也, 山無石者。象形。)

38) 《고림》, 위의 책, 0845, 《간명》, 위의 책, 74쪽·350쪽.

39) 《설문》, 위의 책, 74쪽. : 주석 : 按鉉本作從豕省。

### 3. 結 論

중국 문자 연구에서 경전으로 추앙되리 만큼 비중있는 《설문해자》는 역대 가장 영향력이 컸던 중국 최고의 字典이다. 그 자전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은 한자 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고 조심스러운 작업이다.

본 고에서는 이상과 같이 위에서 언급한 《설문해자》 2편·하의 323개(小篆 323, 重文 49)의 소전 풀이를 분석하여 《갑골문자고림》과 본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14개 字 대하여 고찰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字形演變으로 인한 오류에는 ‘辵·彳·德·往·得·行’ 등 여섯 자가 속한다. ‘辵’은 본래 ‘길(行)’을 걸어가는 ‘발(止)’의 모습으로써 ‘걸어가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나, 《설문》에서는 ‘彳’을 ‘사람의 다리 모양’으로 ‘止’는 ‘발(趾)’에 인신된 ‘멈추다’라는 의미로 잘못 분석하였다. ‘彳’은 ‘네거리(行)’의 한 쪽 부분인 것이 소전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형태로 변형되어 오늘 날까지 ‘조금 걸을 (척)’으로 불리운다. ‘德’은 ‘길(彳)’과 ‘눈(目)’과 추상적 의미의 ‘직선(丨)’으로 이루어진 회의문자로, 구체적으로 ‘길을 갈 때 바르게 본다’는 의미를 나타내었으나, 《설문》에서는 오로지 의미 중점을 ‘彳(조금 걷는다는 허신의 잘못된 해석)’에 두어 ‘오르다’로 해석하였다. ‘往’은 갑골문에서 의부 ‘止(彳와 통용)’와 성부 ‘王’으로 이루어진 형성문자였으나, 소전의 변형 과정과 해서의 간화를 거쳐 ‘王’이 ‘主’로 정착되는 오류를 범하였다. ‘得’, 역시 갑골문에서는 손으로 조개를 들고 있는 모양에서 ‘얻다’라는 의미였으나, 소전에 이르러 ‘조개’가 ‘見’자로 변형되어 추상적으로 ‘보고서 얻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였으며, 해서를 거쳐 오늘 날의 자형으로 간화되었다. ‘行’은 四通八達하는 ‘네 거리’이며 인신되어 ‘걷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소전에 이르러서는 사람의 형태가 부가되어 ‘사람이 걸어 가는 것이다’라고 본의를 해석하게 되었다.

둘째, 後起字를 本字로 삼은 오류에는 ‘正·延·足·品’ 등 네 글자가 있다. ‘正’은 城邑을 나타내는 ‘口’와 ‘발(趾)’을 나타내는 ‘止’로 이루어진 회의문자로, 인신되

어 ‘정벌하다’는 ‘征’자로 사용되었으며, 더욱 분화되어 ‘바르다(正)’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데, 허신은 후기자인 ‘옳은 것이다’로 본의를 설명하였다. ‘延’의 갑골문 자형은 ‘辵’로, ‘길(彳·辵)’과 ‘발(止(趾)·彳)’로 이루어진 회의자이다. 도로를 걸어가는 모양에서 ‘계속 걸어가다’라는 뜻을 가졌으며, 인신되어 ‘연속·계속’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허신은 본의를 ‘길게 가다’로 해석하였으며, 고금자 관계의 ‘延’으로 古字인 ‘延’를 대체하여 오늘 날까지 이르렀다. ‘品’은 갑골문에서 일반적으로 ‘체기’가 나열된 모양으로 보는데, 《설문》에서는 인신된 의미인 ‘사람의 입’에 근거하여 ‘무리’로 해석하고 있다.

셋째, 聲訓法에 의한 오류에는 ‘逆·律’이 있다. ‘逆’은 사람이 밖에서 걸어 들어가는 거꾸로 된 모양과 걸어가서 맞이하는 글자가 결합된 회의자로 ‘맞이하다’가 그 본의이다. 허신이 쌍성자인 ‘辵’으로서 해석한 것은 옳다고 할 수 있으나, ‘辵’과 ‘辵’의 형성 문자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律’은 손으로 필기구를 들고 있는 ‘聿’자와 ‘길(彳)’자로 이루어진 회의자로 ‘법률’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설문》에서 쌍성자 ‘均’으로써 ‘고르게 퍼다’라고 해석한 것은 타당하지만, 자형 분석에 있어 의부 ‘彳’과 성부 ‘聿’의 형성문자로만 본 것은 옳지 않다.

넷째, 互訓法에 의한 오류에는 ‘道·逐’이 있다. ‘道’와 ‘逐’은 서로 호훈하고 있는데, 이 둘은 갑골문에서 의미가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다. 즉, ‘道’는 사람, 즉 노예나 죄인을 쫓을 때 사용하였고, ‘逐’은 사냥에서 노루나 돼지 등 짐승을 쫓을 때 사용하였다. 또한, 허신이 자형 분석에 있어 형성 문자로 보아 ‘辵’에만 의미를 둔 것도 오류라 할 수 있다.

2,000여년 간 역대 학자들의 실질적인 공구서로써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설문해자》를 갑골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新說文解字》 연구를 시도하는 것은 字의 연원에서부터 변화 발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한자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교육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나아가 어휘 연구에도 큰 기여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參考文獻》

- (清)阮元校刻,《十三經注疏》全二冊,北京:中華書局,1996.
- (漢)許慎撰,(清)段玉裁注,《說文解字注》,臺北:天工書局,1992.
- (漢)許慎撰,《說文解字》,北京:中華書局,1996.
- 吳浩坤·潘悠著,梁東淑譯,《중국갑골학사》,東文選,2002.
- 裘錫圭著,李鴻鎮譯,《중국문자학》,신아사,2001.
- 吉林大學古文字研究室編,《于省吾教授百年誕辰紀念文集》,吉林大學出版社,1996.
- 馬如森著,《殷墟甲骨文引論》,東北師範大學出版社,1993.
- 民衆書林編輯局編,《韓韓大字典》,서울:民衆書林,2002.
- 徐中舒主編,《甲骨文字典》,成都:四川辭書出版社,1995.
- 孫鈞錫著,《中國漢字學史》,學苑出版社,1991.
- 阿辻哲次 지음,沈慶昊 옮김,《漢字學〈說文解字〉의 세계》,이회,1996.
- 余國慶著,《說文學導論》,安徽教育出版社,1995.
- 王延林編,《常用古文字字典》,上海書畫出版社,1990.
- 于省吾主編,《甲骨文字詁林》全四冊,北京:中華書局,1996.
- 陸宗達著,金權譯,《說文解字通論》,啓明大學校出版部,1986.
- 李孝定著,《漢字的起源與演變論叢》,臺北:聯經出版社,1986.
- 李孝定編,《甲骨文字集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專刊之五十,1970.
- 丁福保編,《說文解字詁林》,臺灣:商務印書館,1970.
- 趙誠編著,《甲骨文簡明詞典》,北京:中華書局,1996.
- 朱德熙著,《朱德熙古文字論集》,中華書局,1995.
- 陳煒湛著,《甲骨文論集》,上海:古籍出版社,2003.
- 夏商周斷代工程專家組主編,《中國五千年長曆》,氣象出版社,2002.
- 장혜영,〈甲骨文을 통한 《說文解字》 1篇의 오류 수정〉,《中國言語研究》제17집, 한국 중국언어학회, 2003.12.
- 장혜영,〈甲骨文을 통한 《說文解字》 2篇·上的 오류 수정〉,《中國研究》제32권, 한국 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소 중국연구소, 2003.12.
- 김선희,《甲骨文中 나타난 商代 食文化 研究》,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3.02.
- 金塗淵,《〈說文解字〉〈籀文〉研究》,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2001.
- 金殷禧,《古漢字 分化 연구》,연대 석사학위 논문, 2000.
- 牟珍爽,《六書轉注研究》,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02.

- 朴仁順, 《殷商一期甲骨文形義關係研究》, 北京師大博士學位論文, 2000.  
박혜숙, 《中國文字의 本義分化 현상에 관한 研究》, 성대 석사학위 논문, 2000.  
尹彰浚, 《甲骨卜辭에 나타난 商代統治階級文化 研究》, 연대 박사학위 논문, 2002.  
李鏡淑, 《異體字 研究-定義와 分類를 중심으로》, 충남대 석사학위 논문, 1999.  
李貞子, 《西周金文疑難辭 考釋》, 영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1.

#### 《中文摘要》

《說文解字》是一部偉大的文字學著作，在歷史上的影響力很大。雖然甲骨文被發現以來，受到的批評也不少，可還是得到世人的高度重視。如果我們沒有它，很多古文字資料的研究就會遇到許多阻礙。本文的寫作目的在於指出《說文解字》的局限性，糾正其說解的一些錯誤，以方便能夠更好地利用它。

本文先把《說文解字》第二篇·下當中的323個小篆（包括49個重文）對照甲骨文字的字形和本義，然後找出需要糾正的15個字，最後通過考察，歸納為如下四個項目。

因字形演變發生的錯誤：彡·彳·德·往·得·行

以後起字為本字的錯誤：正·延·足·品

利用聲訓法的錯誤：逆·律

利用互訓法的錯誤：追·逐

중심어：《說文解字》，甲骨文，小篆，古文字，本義